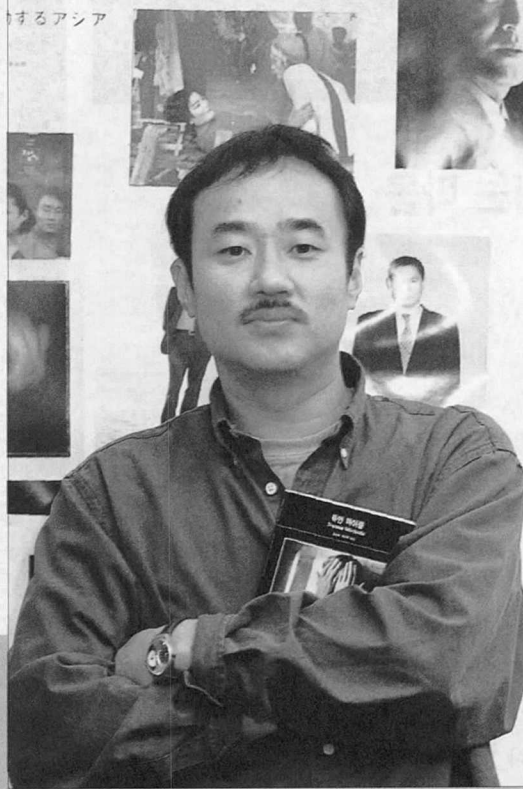


렌즈가 포착한 일상속의 신비

사진작가 오형근씨가 뽑은
《듀안 마이클》



“앞으로 교차지점에 선 사람들을 영상에 담고 싶습니다. 전시회 제목이기도 했던 ‘이화(異化)와 동화(同化)’처럼 이 세상의 진실은 이분법보다는 이질적인 것들이 뒤섞인 교차지점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진이 대상의 재현에만 그친다면 그것은 ‘이발소 그림’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진은 작가의 숨은 눈을 통해 대상을 드러내고 감춤으로써 독해해야 할 텍스트로 탄생한다. 사진작가 오형근씨(36)가 서가에서 꺼낸 사진집 《듀안 마이클》(듀안 마이클 지음, 강운구·권오룡 옮김, 열화당)은 바로 사진이 ‘열린’ 텍스트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책이다.

“저는 듀안 마이클의 사진을 전시회에서 만났습니다. 86년경 미국 ‘브룩스사진학교’에서 사진을 배우고 있었을 때였죠. 그때까지 사진은 단순히 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이클의 작품을 보고 비로소 사진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서툰 듯하면서도 철학적인 그의 작품세계는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그가 읽은 듀안 마이클의 작품세계는 종교적이면서 신화적이다. 평범한 일상을 포착해도 경건하면서 신비한 느낌이 묻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는 성적인 코드가 은밀하게 스며 있다. 일찍이 동성애자로서 ‘커밍 아웃’한 마이클의 성적체성이 작품 속에 녹아 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롤랑 바르트는 사진에 이르는 두 가지 통로가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스튜디오’는 재현된 이미지를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 ‘푼크툼’은 개인적 감성의 통로로 이미지를 재해석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듀안 마이클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는 세계 사진에 이르는 통로를 열어줬습니다.”

오하이오대학 예술대학원에서 사진과 영화를 전공한 그는 현재 중앙대 사진학과에 출강하면서 자유 사진가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줌마> <욕망장역(慾望場域)> <이화(異化)와 동화(同化)> 등 개인전·그룹전을 열고 <꽃잎> <접속> <조용한 가족> 등의 영화포스터를 제작하기도 했다. 올해 출간된 사진집 《아줌마》(홍디자인)에 이어 동성애자와 미국인의 초상을 담은 《이반의 초상》과 《미국인 그들》을 준비중이다.

— 박전홍 기자

열린 마당

가장 좋은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 ① 출판의 승부는 기획·편집에 있습니다. 저희 열린마당에서는 경험과 識見을 갖춘 頂上의 편집자·출판미술가·사진작가 등이 온힘을 모아 '21세기를 준비하는 출판물'을 기획·편집하고 있습니다. 雄飛하는 동반자이기를 기대합니다.
- ② 베스트셀러 생활도서·유아도서 및 교구·오디오·비디오 기획·제작의 광범위한 실적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 ③ 종합마케팅플랜에 근거한 표지·광고·팜플렛도 기획·제작하고 있습니다.

기획·원고작성·번역·편집·디자인·제작代行

110-121 서울 중로구 종로1가45 서울빌딩601호
전화: 739-0150(代) 팩스: 739-0160

SAMDUK
사덕미디어
삼덕

高品質의 제작

이때까지는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제판·인쇄·제본 등의 工程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했고 인력부족 등으로
품질이나 납기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삼덕미디어에 맡겨 주십시오.
책임제작시스템으로 정성스럽게 제작하여 高品質의
출판물을 납기일에 어김없이 납품하겠습니다.



110-121 서울 중로구 종로1가45 서울빌딩601호
전화: 739-0150(代) 팩스: 739-0160
인쇄·제본공장: 465-4707(代)